

'새만금잼버리 유치 1년'

이낙연 총리, 축하영상 메시지 통해 정부 지원 밝혀 전북도, 18일까지 도청 일원에서 기념행사 진행중

전라북도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1주년을 맞아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국민적 붐조성을 위해 전북도청 공영관에서 '유치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스카우트 출신인 KBS 김홍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에는 잼버리 유치 1주년을 축하하고 붐조성 극대화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합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국회의원 한원수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14개 시군 시장군수, 유관기관장, 한국스카우트 관계자,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유치 1주년 메인 기념행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전북도민

의 자긍심 확보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 도와와 국민적 관심 확산을 통한 붐조성 및 2023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카우트 최고 예우인 장문래 입장을 한 김성찬 김성태 국회의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합중한 총재 등 총 5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으며, 한원수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등 9명이 스카우트 평생회원에게 평생회원증을 전달했다.

아울러 합중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송하진 도지사에게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를 위한 헌신과 공로를 기리고자 스카우트 최고의 표창인 한국스카우트연맹 공로장 '무궁화 금장'을 전달했다.

또한 '마음껏 꿈꾸고, 힘껏 비상하

라'는 2023 비전 선포로 성공개최의 굳은 의지를 다졌으며, 도내 기관, 사회단체장 및 도민 모두로 구성된 범도민지원위원회의 출범 선언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으며,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의 사철기와 비빔뮤지컬,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의 축하공연이 많은 박수와 함께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의 축하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영상메세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과 들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진 새만금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해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남은 5년동안 중앙부처, 국회, 한국스카우트연맹, 범도민지원위, 도민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별별마당-전통시장버스킹' 첫 공연

18일 오후 3시 군산 공설시장 청년물 2층서

2018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전통시장버스킹' 첫 공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과 군산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전통시장버스킹' 버스킹의 첫 공연이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군산 공설시장 청년물 2층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패토리 매직'의 카드미술, 로프 미술, 관객과 함께

하는 마우스 코일, 지퍼 미술 등 다양한 미술 공연이 두 명의 미술사와 함께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다.

'문패토리 매직'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미술공연으로 관객이 직접 미술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통시장버스킹은 군산의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활성화 그리고 군산 시민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공연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흥승광 추진단장은 "군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군산시민들을 위한 별별마당 전통시장버스킹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연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새만금문화봉사단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발라드, 블루스 타악 등 보컬 및 그룹사운드의 밴드 공연을 선보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기자

위기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장 순회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전북본부 R&D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2일 군산에서 '위기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장 설명회'를 한다.

이번 군산지역 설명회는 1차 울산(7.19), 2차 사천(7.26)에 이어 3차로 추진하는 전국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 순회설명회로, 위기지역 대상 기업 및 투자예정 기업을 주요 참석대상으로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전북본부 R&D센터(1층 중회의실)에서 14:00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본 설명회는 위기지역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지원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기업별 1:1 개별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등

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9~50%, 설비투자비는 11~34%까지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위기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지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지역보다 토지매입비는 30~60%, 설비투자비는 14~64%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평가 점수도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되어 매출액, 상시고용인원 등이 부족하여 당초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설명에 이어서 신규 투자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1:1 개별상담을 통해 투자업종, 투자규모 등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위기지역 현장 설명회를 통해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조속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 투자유치과(063-280-3545)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전북본부(070-8895-7971)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진성기자

文대통령, 신임 비서관 4명 인선... 최우규·유민영·김봉준·남요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4명을 새로 임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 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현 홍보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현 에이케이 대표 ▲인사비서관에 김봉준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화비서관에 남요원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총

4명이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최우규 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비서관은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었다. 유민영 신임 비서관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에이케이 대표이자, 성균관대·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봉준 신임 비서관은 민주당 부대변인,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남요원 신임 비서관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문화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을 지냈다. 또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정책자문단을 맡았었다.

/뉴시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해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韓 투표시스템, DR공고 대신 사용 우려 ... 선관위, 외교부에 전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주한 공고민중공화국(DR공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기업의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이 사용될 경우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앞서 선관위는 9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DR공고 시민단체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대표단과 접견 자리에서 DR공고 대통령 선거에서 TV가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들은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과 만나 "국민의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IT기기 사용 경험 부족, 현지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시설 열대 기후 환경 등의 여건이 TVS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TVS는 선거결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TVS를 사용한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R공고의 민주적 선거를 위해 한국 정부가 DR공고 선거에 TVS 공급 중단 등의 조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DR공고 선거위원회와 국내업체와의 계약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우려사항 등은 외교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올해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 선정 40억 확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장수원(1)호,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형 SOC확충을 위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서면 및 현장평가(5~6월), 사업발표회(8월 1일)를 거쳐 16일 최종 선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해양부서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최근 전북도 주력산업의 위기로 실직자 증가 및 인구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건의한 결과, 금번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 202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6억원(국 40, 시군 36)이며, 국교부의 선정 이후부터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기자